

충북도, 6조2181억 규모 1회 추경안 편성

3299억원 중 서민생활 안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 532억원 편성
상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거쳐 오는 30일 확정

충북도는 당초예산 대비 3799억원이 증가한 6조2181억원 규모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먹거리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등 전격적이고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안은 소상공인 ·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경제 회복 · 기업성장 지원, 지역주도 충북형 뉴딜 · 기반시설 정비, 코로나19 대응 · 도정 현안사업 적극 추진 등에 중점을 뒀다.
주요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272억원, 국고보조금 517억원, 지방교부세 180억원, 세외수입 181억원 등이며,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부족재원은 지방채 500억원을 추가(총 900억원)로 발행해 채워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공모사업에 도와 시 · 군이 적극 대응해 대거 선정됐으며, 도로 · 하천 등 지역 안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522억원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정부 추경 재난지원금 ·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532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2027 하계 U대회 유치, 2022 과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도 문화재연구원 이전신축,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살처분 보상금 등에 868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큰 경제적 위기였던 IMF와 국제금융위기에서 경험했듯이 지방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를 감안, 2020년도 911억원에 이어 올해 9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확대정책을 통해 코로나 극복에 도전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용식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도도 전격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정 핵심 현안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충북도가 제출한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9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백신, 코로나 대응, 지방재정 확대 및 역할 강화

추경 규모 3,799억원

지역경제회복 및 기업성장 지원 23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지원 6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센터 (2.7억) 및 직업전환 (17.1억)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30억)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2.5억) 중소기업 지원 3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4.3억) 기업정주여건 개선 (10억) 신성장산업 육성 129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송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55억) 에너지산업융합지구 조성 (20억) 	충북형 뉴딜 및 기반시설 강화 52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도 충북형 뉴딜 35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K-스마트 교육도시 조성 (47.5억)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22억)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 (80억) 충북 청주전차관 건립 (70억) 지역안전 SOC 16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81.5억) 지역 SOC-SOC 재해예방 (80억) 하수시설 정비 (169억)
서민생활안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 53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지원 10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근로 지원사업 (84억)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이전 (14억) 서민생활 안정 지원 17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68억) 권역외상센터 운영 (30.5억) 코로나19 대응 25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추경 재난지원금 (132억)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58.5억) 코로나19 진단 시약 (7억) 	주요 현안사업 86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 분야 26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7 하계U대회 유치 (80억) 도 문화재연구원 신축 (35억) 제천 예술의 정당 건립 (20.5억)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증축 (5억) 농업·환경·기타 분야 60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 과산세계유기농엑스포 (33.8억)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64.9억) 도립대 오송캠퍼스 증축 (30.2억) 소방 개인안전장비 교체 (10억)

충북도, 성매매 피해 아동 · 청소년 집중 지원

지원센터 '해봄' 개소... 긴급 구조 · 법률 · 상담 지원 역할

충북도가 성매매피해아동 ·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해봄'을 개소하고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매매 재유입 방지에 나선다.
최근 아동 · 청소년 성매매 매수 경로가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이 90.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실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처벌과 교정의 관점에서 관리되던 '성매매대상아동 · 청소년'이 '피해아동 · 청소년'으로 전환됐다.
충북도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보호활동을 시작했다.
지원센터는 (사)충북여성인권에서 운영하며 성매매 피해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 의료 · 법률지원 · 상담지원은 물론 개인별 전문멘토를 지정한다.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진학 · 진로 상담 등 지속적인 관리로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충북도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16일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실무 간담회를 갖고 지원센터 사업을 공유하는 등 기관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충북도, 교육청, 경찰청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성범죄 피해 단계별 지원, 아웃리치 노후우 및 지역사회 물적 · 인적자원 정보를 공유 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공동 지원키로 했다.
이남희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성매매 피해 아동 · 청소년 전담지원센터를 통해 아이들이 성매매로 재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매매피해아동 · 청소년 지원센터 '해봄'은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번길 5, 시민정보센터 별관2층에 위치하고 있다. 피해아동 · 청소년의 상담을 희망하는 도민은 방문 또는 전화(043-224-8297), 카카오톡 플러스친구(talk8297), 페이스북(haebom8297@gmail.com) 등을 통해 가능하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멘토링 지원 실시

지역 내 취약계층에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10개 기관 선정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는 지난달 30일 도내 사회복지시설, 기관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멘토링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업, 학교,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에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도록 돕는 사업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각 시 · 도 협의회가 지역 거점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도내 지역 멘토링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협력기관을 운영하고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다.
협의회는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 사단법인 복지실천여성협의회,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성심농아재활원,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영실애육원, 청주종합사회복지관, 충북다문화가정지원센터, 충북장애인재활협회,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10곳을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각 기관들은 멘터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학습지도, 상담, 정서지원, 체험 등의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수행하며 멘티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2021 충청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충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위촉식

도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의견 제시 · 모니터링 등 활동 예정

충북도는 10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2021년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도내 청소년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충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과 사업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적 청소년 참여기구다.
지난 1~3월 공개모집과 도내 시 · 군 참여위원회 대표위원, 청소년기관장 등

추천을 거쳐 위원들을 선발했다.
위촉 위원들은 앞으로 도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청소년 정책 제안 및 건의, 제안한 정책에 대한 이행상황 모니터링,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개최 및 참여 등 다양한 청소년 주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으로 위촉된 서원대학교 3학년 김미현 학생은 "직접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과정에 참여해보고 싶었는데 위원으로 위촉되어 매우 기쁘다"며 "평소 관심이 많았던 청소년 권익과 인권에 대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고, 내 스스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서 꼭 실행되도록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충북도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자립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충북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 (043) 255-0504, 253-0504 FAX: (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 · 스프링제본
칼라복사 · 칼라출력
대형코팅 · 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제천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제천서울·명지병원과 업무협약... 신속 대응체계 구축

제천시가 도내 처음으로 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병원 2개소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15일 업무협약을 가졌다. 최근 여러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며 어느 때 보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학대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의료지원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는 관내 종합병원인 제천서울병원(원장 이영환)과 명지병원(원장 김홍호)이 적극 지원

신청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학대피해 아동의 신체·정신적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례 즉각 신고 등 학대 예방을 위해 협조하게 된다.

이상천 시장은 “앞으로 제천서울병원 및 명지병원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학



제천시는 도내 처음으로 제천서울병원과 명지병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대피해아동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접수

는 경찰신고 112번 또는 아동보호팀(043-643-1391)으로 하면 되며 24시간 상시 운영 중이다.

제천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보육 제공기관 5개소→10개소로 2배 확대 운영

제천시가 보건복지부 지정 시간제 보육 제공 어린이집을 기존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시간제 보육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

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이용이나 외출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다.

이달부터 추가로 시작하는 기

관은 아기별어린이집, 놀이별어린이집, 서희어린이집, 하얀어린이집, 한빛어린이집 등 5개소다.

시간제 보육 이용대상은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가정 양육수당 대상자는 시간당 1천 원,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대상자는 4천원의 자부담으로 월 8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에서 아동등록을 완료하고 사전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상천 시장은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등 양육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확대

최대 150만원... 현금·상품권 절반씩 지급

진천군은 남성 장애인 가정에도 최대 15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장애인 지원 정책에 따라 여성 장애인 가정

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군은 부모 중 1명이 장애인이면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액도 최대 150만원까지 늘렸다.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아기

를 낳은 등록 장애인 가정으로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100만~15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거주 기간 6개월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진천사랑상품권

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신청아부 또는 모가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아 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진천군 주민복지과(043-539-3944)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군, 저소득 초등생 230명에게 학습비 지원

군, 전업자·청년세대 지원 등 17개 인구 증가 시책 추진

거듭되는 인구 감소로 ‘소멸’ 경 고등이 커진 단양군이 인구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7일 단양군에 따르면 전업자 지원, 청년세대 지원, 출산 축하, 양육 지원 등 올해 17개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한다.

군은 신규시책으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11개 초등학교 학생 230명에게 1인당 30만원 학습비를 여름·겨울방학 무렵 분할 지

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등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 첫째 아이 130만원, 둘째 아이 180만원, 셋째 아이 이상 230만원이던 출산장려금을 조려 개정을 통해 20만원씩 확대 지급한다.

청년 부부 정착장려금 지급 대상의 연령도 만 39세에서 만 49세로 상향한다.

또한, 관내 실거주 공무원에게 보직 관리, 승진, 성과상여금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업 학생 등 장려금(30만원 이내), 다문화가정 국적 취득자 지원금(50만원), 인구증가 유공기관·기업체 및 가족 지원금(최대 300만원), 출산양육 지원금, 셋째 아이 이상 양육 수당, 귀농·귀촌 인 농가주택 수리비(200만원 이내) 지원 등은 기존과 같다.

단양은 2019년 인구 3만명 벽이 붕괴한 데 이어 지난해 말 기준 2만2천835명까지 줄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ssn@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음성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경찰서, 소방서와 연계... 군민 생명·재산 보호 기대

음성군은 군민을 재난·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CCTV 관제센터와 소방서, 경찰서 등을 연계해 주민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긴급출동 지원, 수배차량 검색 지원, 119긴급출동 지원, 긴급재난상황 지원, 사회적 약자(아동·치매 환자) 실종자 수색 지원, 전자발찌 위반자 검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은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하천수위 원격 제어, 여성안심벨 시스템 등과도 연계했다.

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지원받은 국비 6억 원과 함께 군비 6억 원 등 12억 원을 투입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운영하면 군 전역에 설치한 CCTV를 활용해 각종 범죄·재난·화재·구조 등의 업무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군에는 모두 1천240대의 CCTV가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군은 앞으로 도시 전체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교통, 환경, 에너지 분야까지 주민생활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병욱 음성군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더 안전한 음성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가 지난달 26일 유관기관과 아동보호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주시, 아동보호 원스톱 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협약

충주시가 유관기관 간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아동보호 체계 공공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난달 26일 시청 중앙담회의실에서 유관기관·단체들과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협약을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학대 발생에 따른 각 기관·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즉각 분리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아동의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조길형 충주시장을 포함해 천명숙 충주시의회 의장, 김용환 충주교육장, 김영표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김중수 충주의료원장, 김순애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최재은 충주시어린이집협회장, 박현기 진여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사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안내 협조, 아동학대 및 보호 관련 상호 정보 공유,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관리에 관한 실무협의 체계 구축, 신고 접수·긴급출동·병원이송 등 원스톱 시스템 구축 등이다.

조길형 시장은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이 안전한 충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협약 후 첫 활동으로 함께한 기관·단체와 함께 이달부터 12월까지 아동학대 예방 홍보 릴레이를 펼칠 예정이다.

충주시,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욕창 방지 방식 커버·전동침대 등... 모두 28종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작년 동일 품목 수령시 대상 제외

충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과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저소득계층으로

지체·뇌 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 인이다. 욕창 방지용 방식 커버, 전동침대, 목욕 의자, 음성시계 등 총 28종의 보조기기를 장애 정도 및 유형에 따라 지원한다. 단, 2020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 받은 자 또는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에 대해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에서 개인별 지원 적합 여부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시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새로 소변 수집 장치·바다 특수 앉기 자세 유지용 장치가 추가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보조기기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이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3월 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엔푸드, CJ신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나눔 계룡센터, CJ수원반포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영인저온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낙농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중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나산,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체리부로, CJ유통(충평점), 송림푸드, 청주유통, 에버리치, CJ신선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관(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엘로드림,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더불어, (주)피아씨푸드, (주)금강B&F, KG인삼공사 충북지점, 투샘플레이스, 첨앗식품, 라운엘레스,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 청주사람나눔푸드뱅크 청주유유동, 멜리스(분평동), 백셀유동, 홀플러스익스플러스 좋은아침(가경점), 파리바게트(개신점), 파리바게트(북대점), 비누이투, 좋은아침(북대점), 두레주르(비하계동점), 단킨도너츠(강서점), 팜스팜스, 롤링핀(지웰시티점), 이초곳베이커리, 금관마트, 동청주오뚜기, 초이스베이커리, 플로리안, 좋은아침(성안점), 좋은아침(성화점), 파리바게트(가경대우), 정도너츠, 바로구운빵, 도담영농조합법인, 청풍명월, 명성물류, 머거바식품, 자연솔푸드, 푸드글로벌, 한솔, 비전상사, 태성운수, 도담, 등고개농장, 제훈유통, 장수유통, 오뚜기대리점, 중앙제관(주)
-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백식품, 두레주르 율령점
-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두레주르 금천점, 파리바게트 분평점, 한솔 제2농장, 공천떡점,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 두레주르 금천뉴타운, 따베오 베이커리, 행복8떡집, 유신편방, 파리바게트 청주제일점, 떡이랑, 두레주르 청주용정점, 파리바게트 청주용암점, 영농조합법인 회여울, 홀프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암점, 천명영농조합법인, 정수기획(홍성사), (주)월드이십일메이커, 자연애원합영농조합법인, 천령, 김가네 생고기정육점, 파리바게트 청주제일점, 주주랜드, 서울우유지소, 시아스유통, 두레주르 분평점, 목행청과, 금관할인마트 율령점, 청주특대(주), 무위에뚜와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산과들F&C, 파리바게트 오창중앙점
- 증평군푸드뱅크 거림기계, GS슈퍼 증평점, 케익하우스, 금호숲볼갈비, 서산식품, 좋은아침 율령점, 파리바게트 내수점, 한그루식품, 오뚜기, 단바상사, 단킨도너츠 증평점, 멜리온 증평점, 그린유통, GS25 증평대리점
- 과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과산점, 신선노도, 신선촌, 윤산식품, 제중당약국, 풀무원, 서미숙, 유인숙, 장국희, 따베오베이커리, 두레주르과산점, 파리바게트과산점, 매키로통상, 미미식품, 한살림축산식품, 주성베이커리
- 옥천군푸드뱅크 두레주르 엘마트점, 구가네 농이보강, 조마루 갑지랑, 독도가든, 행운목, 미가(한정식), 이가화로, 옥천청담로타리클럽, (주)한일푸드
- 영동나눔푸드뱅크 두레주르(김홍욱), (주)번영육가공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서울우유(보은점),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농원, 삼농농장, 영양떡방앗간, 김이박부대찌개, 단킨도너츠(금왕)(주)이이자연면, (주)후드원, 김정철소머리국밥, (주)맑은해오름, (주)풀무원, (주)맑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두레주르(성모병원점), 면사랑, 체리부로, 조인, 묵우촌, 동원(이천,백암), 삼육두유, 파리바게트(덕신점)
- 진천나눔기쁨푸드뱅크 파리바게트 진천장관점, 태남 메디스코, 신도식품, 윤지영, 김경식, 리브가왕만두편방, 김수혁, 델리퀵(이월점), 에스엔푸드, 자혜식품, 명가학집, CJ푸드빌, 해마푸드서비스, 파스쿠찌, 행
- 복한 떡집, 이사식품, 명가떡집, 생거진식품, 맑은해오름
-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물식품, 대하유통, 델리퀵충주교현점, 떡보이하루, 두레주르 주덕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과유통, 삼일상회, 서울우유지소충주대리점, 원원유통, 육사청과, 은혜청과, (주)미립농산, CS코리아, 지미원에프앤지, 충주청과, 하나로베이커리(충주점), 한아름청과
- 제천시푸드뱅크 건국유업, 두리메리제, 롯데제과 제천, 박달재사, 푸드, 문우통, 씨알푸드, 오뚜기 제천점, 오뚜기, 태성김치, 푸른촌, 풀이리인, 365할인마트, 크리스피크림제천점, 호수상사
- 단양나눔기쁨기초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사업체, 신선초, 하림, 맑은식품, 한돈, 섀넬이푸드, 대상청원점

'복지허브' 옥천통합복지센터 개소



2일 지역 복지허브 역할을 담당할 '옥천통합복지센터' 개소식에서 김재중 군수를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 커팅식을 하고 있다.

육아·다문화·노인 등 6개 기관 상근 130여명 입주

옥천군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한 곳에서 해결하며 지역의 복지허브 역할을 담당할 '옥천통합복지센터' 개소식이 2일 열렸다.

센터 내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김장희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후원사인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이병훈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 행사는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 단계를 적용해 센터 개소에 대한 경과 보고 후 커팅식, 장난감 도서관인 맘스허그 현판식 등이 진행됐다.

군에 따르면 통합복지센터는 부지 2천311㎡, 연면적 4천183

㎡의 지상 7층 건물이며, 지난 2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돼 육아, 다문화, 노인, 자활 등의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6개 기관의 상근인력 130여 명이 입주하며, 1일 이용객은 500여 명 정도에 예상된다.

센터 1층에는 민·관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입주하고 취약계층이 생산하는 물품 홍보판매 코너와 자활 커피공방이 배치된다.

2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과 실내 놀이터, 3층에는 식당과 공동육아실, 4층에는 시니어클럽과 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 5층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섰다.

김재중 군수는 "통합복지센터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하는 마중물 역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 아동비만예방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1~2학년 아동 대상 놀이형 영양·신체활동 등 진행

옥천군은 건강한 아동기 성장 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생활습관 정착 및 아동비만예방 실현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7개 기관 운영 후 내년도에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추진중인 아동비만예방사업으로 초등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이용 1~2학년 아동 대상으로 놀이형 영양,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고 스스로

건강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자 한다.

놀이형 영양,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각각 주 1회씩 총 16회기로 1학기에 초등2개교(죽항초, 장야초)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2개소 운영하고, 2학기에 초등 3개교(동이초, 이원초, 안남초) 돌봄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육혜수 건강증진팀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학습지도안 및 프

로그램 매뉴얼을 배부 받아 관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체육회 협업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사업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 보건소는 방역수칙 준수하며, 아동청소년건강생활실천을 위해 관내 교육지원청과 학교 협조로 신체활동교실, 영양 교육, 구강보건교육, 흡연예방 및 음주폐해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옥천군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증평군, 정신질환자 치료비 사업 확대

응급·행정입원 시 전액 지원

증평군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발병 초기에 집중적

인 치료를 유도하고 입·퇴원 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군은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으로 입원하면 소득수준과 관

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난해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전국가구 중위소득 65% 이하일 때만 지원했다. 발병초기·외래치료비는 전국가구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올해부터 80% 이하까지 확대된다.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4인가구 월소득 390만1000원 이하 가구가 해당한다. 1인당 최대 450만원 한도에서 연중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환자들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증상완화와 사회복귀를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 "임신·출산 준비 지원받으세요"

임신 전·후 검사 쿠폰지원

영동군은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비 지원 및 영동병원 산전검사 쿠폰지원 사업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가임기 여성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임신 전, 후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안정을 위해 꼼꼼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내 거주(부인기준) 신혼부부가 첫째 아기 임신 전 군 보건소에서 3개월 엽산제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료쿠폰을 발급받아 분만취약지 병원인 영동병원에서 X-ray, 심전도, 풍진, 갑상선 기능검사 등 총 12종의 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임신 후에는 초음파검사 쿠폰 10매, 기형아검사 2매 쿠폰을 지급받아 영동병원에서 산전 검사시 진료 받을 수 있다.

특히, 기형아·초음파비 무료 지원은 분만 취약지 병원 활성화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전, 후 검사비 지원을 통해 지역 임신 부들의 건강한 임신·출산 준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출산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가임기 여성과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모든 가임여성에게 임신부, 신생아 및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괴산군, 맞춤형 노인복지사업 추진

예산 12% 증액... 치매전담 요양원 건립·일자리 제공 등

괴산군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괴산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1만3134명으로 전체 인구수인 3만7688명의 34.8%가 넘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태다.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군이 올해 확보한 노인복지증진 관련 예산은 512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457억원보다 약 12%를 증액해 다양한 맞춤형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군은 33억원을 들여 문광면 광덕리 산 33-23번지(4000

㎡) 일대에 괴산군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원을 건립해 치매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요양원은 지상 2층, 건축 전 체면적 1120㎡ 규모로 침실, 프로그래밍, 사무실, 의료실, 식당, 조리실 등이 들어선다.

요양원에는 치매노인 30명이 입소할 수 있으며,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20여 명이 근무한다.

군은 지난 7일 군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를 완료했다.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10월에 착공해 내년 6월

에 준공 및 개원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1300여 명의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소득확보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며, 민선7기 공약사업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센터' 운영과 연계해 노인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취약노인 1223명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말벗서비스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디지털 돌봄장치 354대를 취약노인 가정에 보급한다.

이를 통해, 건강컨텐츠를 제공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사진촬영, 활동량 및 화재감지, 응급호출 정보 등을 자동 송신하는 비대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은군,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바우처 제공... 자립 증진·사회참여 기회 확대



정상혁 군수와 정은영 센터장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보은군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본격 시행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바하 보은군발달장애인주간

활동센터(센터장 장은영)로 선정하고 6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을 주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서비스다.

신청대상은 만 18세부터 65세 미만의 지적 또는 자폐성 등록 장애인으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에 본인이 희망한 단축형(월 56시간), 기본형(월 100시간), 확장형(월 132시간) 등 바우처가 지급되고 본인부담금은 없다.

바우처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통해 각종 교육 및 건강증진활동, 자조모임, 음악, 창작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영동군, 노인 '배회인식표' 무료 배부

치매노인 실종 예방 지문등록 사업 추진

영동군은 지역의 치매 노인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배회가능 노인 인식표 무료 배부와 지문 등록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달 29일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앙치매센터 제공 자료에 의하면 영동군의 60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3%, 추정 치매환자 수 1832명이며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2.24%, 추정 치매환자 수는 1800명으로 산출됐다.

이는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전국 10.33%, 충청북도 11.09% 보다 1%이상 높은 수치이다.

또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매노인 실종 신고는

2016년 9869건, 2017년 1만308건, 2018년 1만2131건, 2019년 1만2479건, 2020년 1만2272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영동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과 동시에 치매노인 실종예방과 조속한 귀가 지원을 위한 배회인식표 80매 무료 배부 사업을 하고 있다.

배회가능노인 인식표에는 치매환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개별 고유번호가 표기돼 있으며 사용방법은 대상자가 자주 입는 옷에 다리미를 이용해 부착하는 방식으로



배회인식표.

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인식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반명함판 사진 지참)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문 사전등록 제도를 이용할 때는 실종 대비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 사전등록을 치매안심센터와 경찰서에서 모두 할 수 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대리 (T.043-234-0840~2)

백신 접종 후 요양병원 확진자 ‘뚝’

21일 기준 접종률 76% 이상... 확진자 비율 2%대로 감소 일부 요양병원 종사자들 검사 결과 ‘항체 형성’ 소식도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총 177만1,407명으로 인구(5,200만명) 대비 접종률은 3.41%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총 6만597명이다.

특히 우선 접종 대상군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접종률이 76% 이상이다.

요양병원 1·2분기 접종 대상자 41만7,459명 중 76.2%인 31만7,965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

요양시설은 접종 대상자 28만2,347명 중 76.1%인 21만4,773명이 1차 접종을 끝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A

백신 1차 접종만으로도 요양병원 발(發)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방접종 이전인 2월 1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중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관련 비율은 9.7%였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점차 감소해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는 그 비율이 2%로 낮아졌다.

요양병원협회 자체 집계 결과에서도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97명 발생했지만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확진자는 8명이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 신속항체 검사키트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종사자들을 검사한 결과, 항체가 형성됐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A 요양병원은 에스디바이오센서



의 코로나19 신속항체검사키트로 종사자 32명을 검사한 결과, 66%인 21명에서 양성 나왔다.

B요양병원도 종사자 25명을 대상으로 같은 신속항체검사키트로 검사한 결과, 68.0%인 17명이 양성으로 나왔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3개월 넘게 주 2회 선제적 PCR 검사를 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양성 여부를 판별해 집단감염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요양병원협회 기평성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오면서 요양병원은 감염취약지역이 아니라 감염안전지대가 됐다”며 “앞으로 환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카톡·문자로도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이미지·영상자료 상담원에 제출도 가능... 편의성 UP

보건복지부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원활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문자로 학대 신고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장애인 스스로 학대 사실을 알리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

으로 문자 신고 서비스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통신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따랐다.

2019년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4376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1923건이었는데, 이중 청각 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0.4%(8건), 언어 장애인의 경우는 0.1%(1건)에 불과했다.

이날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 학대 신고 전화(1644-8295)로 신고 문자를 보내면 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 내용이 연결된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카카오톡에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를 검색한 뒤 ‘상

담하기’를 선택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신고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이미지와 영상자료를 상담원에게 직접 보낼 수도 있다.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신호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문자 신고 서비스는 학대 신고에 불편함이 있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학대 피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대상 완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변경... 초등생도 참여가능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이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을 개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침 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 활동 서비스 대상

이 확대됐다.

지금껏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인 중·고등학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원 대상이 늘면서 초등학생도 방과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또 방과후 활동 시간도 평일 기준 13시~19시에서 13시~21시로 2시간 연장했다.

복지부는 지금껏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림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거주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밖에 주 20시간(월 80시간) 이하로 일하는 취업자와 이 시간 이하로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이 완화됐다.

복지부는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을 대상으로 한 ‘1인 서비스도 신설’했다. 1인 서비스 이용자는 전담인력 1명과 함께 주간활동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 지원 사유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예정인 사람은 1개월 전에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복지부는 이 기간을 2개월로 늘렸다.

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많은 발달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종 임신부 지원 한곳서 신청해도 된다

‘맘편한 임신’ 전국 서비스 개시... 출산진료비 등 추가

A씨는 3년 전 첫째를 임신했을 때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엽산·철분제를 받으러 보건소를, KTX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집 근처 코레일역을 각각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둘째를 임신한 지금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가운데 한 곳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19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고 18일 밝혔다. 이번엔 전국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모자보건수첩 등 서비스 5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맘편한 임신을 통해 전국 공통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14종과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지자체별 3~4종)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엽산·철분제나 모자보건수첩, 지자체 서비스 중 물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했다.

30일부터는 임신부가 택배요금을 선결제하면 비대면으로 백

배를 받아볼 수 있고 요금도 할인된다.

아울러 임신부가 사전에 정보제공·이용에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 없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맘편한 임신은 국민이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각종 공공지원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생애주기 통합제공 서비스’ 중 하나다.

정부는 2019년부터 시작한 ‘안심상속’, ‘행복출산’에 지난해 ‘온종일돌봄’ 등 4종을 추가했으며 2022년까지 창업, 취업, 귀농·귀촌 관련 등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지원센터가 관리한다

식약처 ‘어린이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강화 기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앞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받게 된다.

센터 지원대상은 영·유아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1회 급식 인원이 상시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런 소규모 급식소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껏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의무등록 대상에 대한 규정은 없었지만,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등록 대상에 영양사가 없는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1회 급식 인원이 상시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런 소규모 급식소가 센터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급식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위반 시 900만원이다. 식약처는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추가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중·고교 교외 시간에 급식을 포함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에 424곳이 설치돼 있다.

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위반 시 900만원이다.

식약처는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추가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중·고교 교외 시간에 급식을 포함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에 424곳이 설치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오는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 2만여명 추가 혜택 전망... 관할 보건소·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 원) 120%~150% 이하)돼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포(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 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포,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25일까지 제공한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4.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과 김민지 대리

전화 043)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과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디지털 교육으로 치매 예방하세요”

충북대학교-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업무협약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로 취약계층 생활역량 강화

충북대학교(총장 김수갑) 생활과학대학이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준환)과 지난달 31일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로 취약계층 생활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으로 양 기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교육 기반 치매예방 프로그램 '기억해 줌(Zoom)'을 운영하며 지역 노인들의 교육 및 자립역량 강화, 정보기술격차 해소,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 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억해 줌(Zoom)' 프로그램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및 참여 노인들의 가정에서 이달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서포터즈로 선발된 충북대 생활과학대학 재학생 35명은 노인들의 교육 및 태블릿PC·스마트폰 활용 교육, 온라인을 통한 인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과 충북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들의 생활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노인 등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지역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코로나19 이후의 비대면 복지 서비스 안정화를 돕는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대학 육성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생활과학대학 '취약계층 Life PLUS 사업'으로 고령인구를 집중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충북연구원 지역나눔문화 확산 '앞장'

'착한일터' 업무협약 체결 매월 임직원 급여 일부 기부

충북연구원(원장 정초시)은 도내 저소득 소외계층지원을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영수)에서 추진하는 '착한일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5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착한일터 캠페인'은 매월 약정한 기부금을 급여에서 정액으로 기부하는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복지기관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대표적인 직장인 기부 프로그램이다. 협약을 통해 충북연구원 임직원은 매월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착한일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더 많은 관심



15일 충북연구원이 도내 저소득 소외계층지원을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착한일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을 갖고,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영수 충북모금회장은 "개인이 마음을 내어 후원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직원들이 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충북연구원은 충북도정 전 분야에 걸쳐 '충북미래 100년' 밀그림을 다져오고 있다.

충북의 발전과 함께하고 있는 연구원은 그동안 수해복구 현장과 '사회적기업' 등을 찾아 생산적 일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고통 분담에도 동참하는 등 사회적 기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NH농협, 셋째아 출산축하금 1천만원 기탁

첫 수혜자 제천 정은경씨 부부 10만원 상당 농촌사랑상품권 전달

NH농협은(제천시지부장 김동영)은 지난달 29일 셋째아 출산축하금 1천만원을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양순경)에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탁 받은 후원금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각 10만원 상당의 농촌사랑상품권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NH농협이 지난달 29일 제천시 셋째아 출산축하금 1천만원을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했다.

그 첫 번째 수혜자로 지난달 31일 영서동에서 진행된 제천

시 3패(快)한 주택자금지원사업 수혜 가구 축하 현장에서 둘째, 셋째 쌍둥이를 출산한 정은경씨 부부에게 농촌사랑상품권 10만원과 함께 신축년 출생기념 선물(제천에서 태어났'소')을 전달했다.

농촌사랑상품권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셋째아 이상 신생아가 출생한 가정이다.

신청방법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며 추후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탁 후 원금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농촌사랑상품권은 농협하나로마트와 농협주유소, 목우촌 등에서 사용가능하다.

충북도 중증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촉진

연말까지 200명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실시

충북도는 중증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비경제 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이수한 동료 지원가가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

하여 적극적인 경제활동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1월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충주시지회,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연말까지 총 200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행기관들은 동료지원가 채용 및 교육 등의 절차를 거친 후 12월까지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참여자를 모집하여 동료 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취업 연계 등 동료지원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료상담원은 '장애'라는 서로 비슷한 배경을 가진 동료와 상대방의 작은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으며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며, 더 나아가 인간관계를 재구축하고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역량을 강화한다

자조모임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을 나누고, 서로 도와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운영하는

모임으로, 자조모임을 통해 얻어낸 자신감, 사회성, 표현력 등은 직업생활에 적응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참여자는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인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 시 장애보험 가입 및 참여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는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043-294-1243),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충주시지회(☎043-848-6533),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043-731-7775)로 하면된다.



정상혁 군수가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을 찾아 '꿈 나르는 빨래방'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저소득층 맞춤형 세탁서비스 제공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꿈 나르는 빨래방' 운영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박미선)이 지역 저소득 재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 '꿈 나르는 빨래방'을 본격 운영한다.

'꿈 나르는 빨래방'은 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설치됐다. 운영은 보은군사회복지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장애인 직업훈련

생성이 맡는다.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이불 등 대형 빨래감을 세탁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다.

취약계층에 대한 세탁물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 편의를 지원하고 새로운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게 돼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마련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꿈 나르는 빨래방'은 주 3회(월·수·금) 운영한다. 주 2회(화·금) 수거와 배달서비스가 진행되며, 세탁서비스 뿐만 아니라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문화배달부를 파견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시행된다.

박미선 관장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장애인의 가구를 방문해 빨래감을 수거하고 세탁·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 취약계층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고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시, '상상해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용암동 대원칸타빌더테라스 내 위치... 요리활동 등 진행

청주시가 21일 상당구 용암동 대원칸타빌더테라스1단지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내 키즈클럽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했다.

기준에 운영 중인 청원구 주성

동 대원칸타빌3차, 서원구 산남동 대원칸타빌2단지, 흥덕구 북대동 금호어울림 1단지에 이어 네 번째 공동육아나눔터 개소로 총 4곳을 운영하게 됐다.

신규 개소한 공동육아나눔터의 정식 명칭은 '상상해 공동육아나눔터'다.

이번에 개소한 공동육아나눔터는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미영)가 운영을 맡게 되며,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 요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육아나눔터

를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육아나눔터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을 지원하고, 이웃 자녀를 함께 돌보며 육아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다.

충북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콜센터 운영

오전 8시 30분~밤 12시 민원 응대... 접종 기관 등 안내

충북도는 75세 어르신 등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 응대를 위해 콜센터(☎043-120)를 설치하여 오전8:30~24:00까

지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

충북도 콜센터는 예방접종 대상자 및 일정 안내, 예방접종 사전 예약방법, 접종 증명서 발급안내, 접종센터, 접종기관(위탁의료기관) 안내,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및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에 대해 안내하며, 중증이상반응관

련 상담 시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상반응 관리팀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콜센터 외에도 시군 14개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담당 부서를 통해서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설치를 통해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백신접종은 물론, 도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고용및직업
- 주거지원
- 보육및교육
- 의료및건강
- 요양및돌봄
- 정신및심리정서지원
- 문화및여가
- 권익보장및법률
- 일상생활지원
-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충북복지넷
www.043w.or.kr

‘청년의 삶이 나아지도록...’ 올해 청년정책 23조 8000억원 투입

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4개 안전 의결... 시행 계획 수립 101만8000여명 고용·5만4000호 주택 공급... 취업지원제도·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등 43개 신규

정부가 2021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 청년 정책에 23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총 101만 8000여 명의 청년 고용을 지원하고 5만 4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장학금 및 취업연계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가장학금 개편방안도 하반기 중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4개 안전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말 수립한 제1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정책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32개 중앙행정기관은 2021년 308개 청년 정책에 23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1258개 사업에 약 2조 2000억 원의 순시·도예산(총 3조 2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과제수 기준으로 보면 일자리(37.3%), 교육(28.6%), 복지·문화(16.2%), 참여·권리(10.1%), 주거(7.8%)순이다.

예산 기준으로는 주거(36.5%), 일자리(34.5%), 교육(23.8%), 복지·문화(4.9%), 참여·권리(0.3%) 등이 다.

시행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을 분석해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85개 청년정책이 신규 도입됐고 2021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마음건강 바꾸어 등 43개의 청년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

① 일자리 분야

기존 대책을 통한 79만 4000명 고용 창출에 추가 대책을 통해 22만 4000명이 더해져 총 101만 8000명의 청년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일자리·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제공, 민간의 청년고용 촉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총 28만 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는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10만 명 신규)하고 재가입 기회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디어 발굴→교육·사업화→자금지원→제도전’ 등 기술창업 전 주기 패키지 지원으로 청년창업도 적극 지원한다.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택배기사 등 청년이 주로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실태조사·청년 의견수렴을 통해 특고·플랫폼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 보호를 강화하고 고위험·저소득 직종 특고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한다.

배달 플랫폼(APP) 사용 종사자의 안전·보건 기본권 확보를 위해 배달플랫폼(APP) 연동 확대 및 적정 배달 시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전 배달 시간을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하반기 중 검토한다.

진국 권역별 민간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매년 250개 민간기업에 대한 채용 전형 설계, 관계 법령 적용 가이드 등 직접 컨설팅으로 민간 분야 공정 채용을 확산할 예정이다.

② 주거 분야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해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1만 5100호 등 총 5만 4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대학생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000명 규모의 대학 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비율을 확대한다. 2021년부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20대 미혼 수급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

급하며 주거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도 기준중위소득 45% 이상에서 완화를 검토한다.

청년 전·월세 전세자금 대출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보증료를 추가 인하를 통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8만 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초장기 정책모기지(대출상품)를 도입해 청년의 내집 마련도 지원한다. 12개 선도지자체를 선정해 고시원·반지하 등 주거 취약 청년의 주거상황을 지원하는 사업(이사비·보증금·생활품·서류작성 지원)도 본격 추진한다.

또한, 노후 주택·고시원·상가 등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청년 친화형 주거모형을 보급하기 위해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수시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과 주거 정책 반영방안을 모색한다.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을 위해 청년들에게 주거복지정보 및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마이홈’ 포털을 마련하여 자가진단시스템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주거급여 수혜 청년을 확대한다.

③ 교육 분야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20년 520→21년 700만원)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가장학금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대학입학금 완전폐지(22년)를 위해 단계적으로 감축(20년 56%→21년 70%)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0년 1.85%→21년 1.7%), 실직·폐업시 일반학자금 상환유예 등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한다. 고졸 청년의 후속교육 장학금을 9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 대상 평생교육 바꾸어(이공관) 지원도 1만 5000명(최대 70만 원)으로 늘리는 등 대학 미진학 청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육 콘텐츠 공유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공유대학을 8개 분야 총 48개교를 지정·운영해 신기술 분야 청년 역량 강화를 본격 지원한다. 디지털 신산업, 그린 에너지, 미디어 등 분야별 맞춤형 인재 양성에 지속해서 늘린다.

고졸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현장실습생·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 현장실습 선도기업 확대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내실화한다.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졸업생에 대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을 확대(20년 4백만원→21년 5백만원)하고, 고졸 일자리 발굴 DB 구축과 취업지원관을 확대 배치, 공공기관 고졸 채용 확대 등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좋은 고졸 일자리 발굴·매칭 등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 기반을 확대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학습교재비 지원 등 청년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까지 대폭 확대(20년 80천명→21년 234천명)한다.

④ 복지·문화 분야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저축계좌 등 지원규모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을 2개로 통합, 청년 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 내실화한다.

청년 부채 부담을 경감한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취업준비생 등 청년 대상 햇살론 공급규모와 미취업청년 채무조정(분할상환, 이자감면 등) 지원 대상연령 확대(만 30세 미만→만 34세 이하), 상환유예 기간 확대(4년→5년) 지속 추진한다. 청년 정신건강 특화사업을 7개에서 12개 시·도로 확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우울·불안 등 해소 방안을 지원한다. 청년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마음

건강 바꾸어, 월20만원)’ 사업을 실시한다. 정신건강검진(우울증) 결과 우울증 의심 청년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등 정신건강 사후관리강화 방안 마련하여 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인력 확충(학생1,000명당 1명)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월30만원) 지원인원 확대(7.8천명→8.0천명)와 아동복지대상 자립지원 대상 규정(5년 이내)을 고려, 현행 3년인 자립수당 지원기간을 5년으로 확대 검토 추진하며,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수급 자격을 명시화한다.

또한, 가졸청년 등 위기청년의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여 실패퇴소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6개월 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1인가구의 고독·고립 방지를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 관계개선, 상담 등을 지원한다.

청년 장애인 교육에 대한 지원도 내실화한다. 장애 대학(원)생 원격수업 보조(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지원금액 확대(학교당 年720→과목당 年1,000만원), 교육지원인력 시급 확대(일반 16%↑, 전문 19%↑)하며,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등록금 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의 문화콘텐츠 분야인 모험투자펀드, 콘텐츠기업 재가치 펀드 등 4개 분야 펀드 조성을 통해 청년·중소기업 콘텐츠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인적기반 및 창작 경험 부족한 청년 등 신진예술인 3,000명 대상으로 창작준비금 20만원 지원 등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예술경력 2년 미만의 신진예술인에게는 완화된 예술활동증명 심의 세부기준 적용하여 예술인복지사업 참여 기회 확대하여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비대면 콘텐츠 산업 육성한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9만원→10만원) 및 지원인원을 확대(24만명→25만명)하며 ‘22년 이후에는 모든 기초·차상위계층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 지급한다.

⑤ 참여·권리 분야

청년참여위원회 기준을 마련하여 청년위원 청년인재 DB 구축 및 선정 기준 개선과 함께 청년참여 위원회 지정 비율 확대한다.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1차 계획에 따른 추진현황 점검·도려(분기별),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방안’ 수립(21.7월)하여 대학 현장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대학 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학생 참여 비율이 10% 이상 되도록 세부 권고기준 등 마련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부처가 협업하는 정기적 공론화장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청년의 제를 발굴한다.

청년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 연구원 지정·설립하여 청년정책 주요 분야별 통계 및 조사관리, 청년현황 및 지역별 특성 반영 등 청년 실태조사 및 통계 체계화 방안 마련한다.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하반기에 수립하여 청년 역량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 공간 조성, 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권고를 통해 인권센터 설치를 확충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해 청년 대상 노동, 금융, 주거 등 관련 상담 교육을 강화하여 피해예방과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국외 현장학습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글로벌 현장학습 온라인 프로그램 도입·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물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최초’의 청년정책 종합 시행계획

수립 방향	신규과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합·지방 공동 중앙정부(27개 기관) 지방자치단체(173)가 공동으로 시행계획 수립 ② 유연한 보완 코로나 19 장기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문제점들을 보완 청년의 목소리 반영 ③ 청년과 함께 청년들이 직접 정책 형성과정 참여하고 해결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문재인 정부 출범(17.5월) 이후 185개(총 과제 308개) 청년정책 신규도입 ⑤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마음건강 바꾸어 등 43개의 청년정책 새롭게 시행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2899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1099명 신규)
- K-디지털 역량개발 1만명
- 특고 직종 고용보험 확대 적용 및 추가 방금(1만명 이상 연세, 프로그래머, 개발, 디자인)
- 심희병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온·오프라인 청년창업 패시지 지원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 청년주택 5.4만호 기속사 0.6만호 공급
- 기속사비 현금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비율 확대
- 청년 8만명+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 주거환경 개선 노력 강화(주택 방포기) 전문단속, 고시원 기초기준 마련 등)
- 주거와 관련된 청년창업 패시지 지원
- 부모와 별도 거주 수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31만명 청년가구)

고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강화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0년 1.85%→21년 1.7%)
- 고졸 청년의 후속교육 장학금을 확대(71만 099명)
- 저소득 청년대상 평생교육 바꾸어 지원도 확대(15만명, 최대 70만원)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확대(20년 48만명→21년 51만명)
- 혁신공유대학 48교 지정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그린 에너지, 미디어 등 맞춤형 인재양성
- K-MOOC 청년 참여 인센티브 강화

취약 청년의 자립을 돕고, 건강한 청년의 삶을 지원합니다

- 청년저축계좌 1.8만명 지원
- 자산형성지원 플랫폼 확대(1만 1천 명)
-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사회관계망 지원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3,000명, 200만원)
-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9만→10만) + 지원인원 확대(24만명→25만명)
- 마음건강 바꾸어 최초 시행(월 20만원)
-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프라 강화

청년과 함께 정책을 결정해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여겠습니다

- 청년인재 DB 구축
- 청년참여 위원회 비율 확대(20 13.9→21 17.1%)
-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해 청년 역량 기증
- 청년에 대한 금융, 노동, 교육 등도 지속 강화
- 청년정책 전달 연구원 지정·설립 추진
- 청년 실태조사 및 통계 체계화
-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방안 수립(21년 8월)

복지광장

성공적인 권익옹호 실천을 위한 미션



신 해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즉 휠체어를 이용하더라도 장애인이 갈 수 있는 모든 장소에 갈 수 있으며 사회생활 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많은 부분들이 해소된다면 그 사람은 장애인이 아닌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불편한 제약 상황들이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각종 사고나 질병과 노화를 겪

으면서 불편한 제약 상황들이 많아 질 것이다. 그 불편한 제약 상황들이 많아진 사람을 일컫어 '장애'에 '인'을 붙여 장애인이라고 명명한다. 장애인복지법의 제정목적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장애인을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이라고 명명된 사람들이 참여증진 노력을 통해 사회에 통합하라는 뜻인데 오히려 불편한 제약 상황들을 사회적·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사회통합 이바지에 더 빠른 길이며 옳은 길 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여 차이를 두면 그 차이 때문에 차별과 학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10여년 동안 잘 알려지게 된 도가니 사건과 신안 염전 노예사건, 축사노예, 농장노예 사건 등을 통해 우리사회 전반의 약자에 대한 인식수준 점점 및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한 큰 충격과 반성,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그 변화의 계기에서 탄생된 기관이 바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하여 설립된 장애인학대 대응전문 공적기관이다.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활동한 2019년의 충북지역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모두 132건(6.9%)으로, 경기 397건(20.6%)·부산 169건(8.8%)에 이은 전국 3위 수준이었다. 지역별 평균인 106.8건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전국 조사원 평균 1인당 42.8건의 사례를 담당하고, 평균 459.0회의 조사 및 지원을 진행하는 데 비하여 충북은 조사원은 2명이 154건을 담당해 1인당 담당 사례 건수가 77.0건으로 부산 93건에 이은 전국 2위 수준을 기록했으며 1인당 상담 및 지원 횟수도 평균보다 300여회 많은 725.0회로 1위 수준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충북지역 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은 4명, 실제 학대의 대응과 피해자 지원 업무는 조사원 2명이 담당하고 있다. 조사원의 2명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고접수, 학대현장조사, 긴급할 경우 응급보호, 사례지원 등 피해 회복지원 업무,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예방교육 및 캠페인,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병원진료지원, 심리치료지원, 고발장 및 수사요청서 작성 및 접수, 진술조력지원, 소송절차 지원, 상담연계 등의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기에 72시간 이내 2인 1조로 현

장 조사 및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매뉴얼이 준수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인력 부족으로 조사원이 단독 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빈번해 위험에 대한 노출이 크고, 충분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기 힘들며, 행위의심자로부터 지속적인 위협과 업무방해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이 장애인권익옹호실천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충북도내 장애인학대 근절과 성공적인 장애인권익옹호 실천이라는 미션을 완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벌, 둘째, 모든 학대사건 소송구조에 국선번호사 지원, 셋째, 피해자에 대한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 넷째, 장애인 권익옹호의 핵심인 학대 현장에 신속한 출동 및 조사,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지원, 장애인 학대 예방에 대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시급히 권익옹호기관의 조사원 2배수 인력 증원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를 지우고 '인'만 바라보아야 한다. 즉 장애가 아닌 사람이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가 근절되고 성공적인 권익옹호실천이 가능하다.

정신건강

생애주기별 디지털 과의존 예방 4단계



연 현 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향상' 매일 같이 들려오는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예전처럼 유지되지 않는 시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와 가족의 건강을 위한 거리두기, 언택트 생활이 계속 이어지자 온라인 활동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집계 결과, 2020년 온라인 전자상거래액은 2019년 대비 19.2% 증가한 161조 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언택트 생활로 인해 전보다 디지털미디어, 온라인 환경에 더 자주, 쉽게 노출되면서 디지털 과의존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4만 4천여명을 조사한 결과 23.3%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임을 보고하였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45.2%는 본인의 과의존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 사용자군 중에서도 16.3%는 스마트폰 이용에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사용자군은 과의존 해소를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희망 여가생활 응답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일반 사용자가 휴식활동(27.1%),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13.5%)를 응답한 반면, 과의존 위험군은 스마트폰 이용(21.2%)을 희망여가활동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인데요. 과의존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스마트폰 이용이 희망여가활동으로 응답하다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마트폰 이용을 개인이 혹은 스스로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개인이 과의존 해소 노력을 했을 때 '습관적 스마트폰 이용'이 방해가 되었다고 응답한 사용자가 많았습니다. 어느 가수의 노랫말에 "습

관이란게 참으로 무서운" 안하려고 하지만 어느 새 스마트 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 폰을 대체할 것을 찾을 때도 스마트 폰으로 그것을 검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디지털 과의존 해결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무조건 사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미 일상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어 있고, 개인의 노력만으로 조절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조건 사용하지 않으려다 보면 반복적인 실패가 나타나고 실패를 반복하다보면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그와 비슷한 감정이 생겨 오히려 더 안좋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과의존 해소는 더욱 어렵게 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 <스마트쉽 센터>에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성인)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R)는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의식(Problem recognition)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신체·심리·사회·안전 등의 부작용을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B)는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상태 점검(State check)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문답을 통해 자신의 과의존 수준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스마트쉽 센터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성인용)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S)는 바른 스마트폰 사용 실천 방안 및 대안 제시(Suggest alternatives)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C)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 형성 강화(Connect)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노력, 공공장소에서의 '스마트폰 예절', 더 나아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가려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4단계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기도 나의 사용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요즘 같은 시기에 주변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강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가 일상의 대부분을 스마트폰만 잡고 있다면 안되겠죠. 정신건강은 물론, 신체건강을 위해서라도 스마트폰과 잠시 잠깐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현장의 목소리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평생교육



윤 회 울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2015년 10월, 복지관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상대해본 경험이 많지 않았던지라 행여 실수는 하지 않을지, 어르신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 시간이 넘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복지관으로 오는 내내 걱정하고 긴장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렇게 긴장되고 설레었던 첫 출근 이후 나는 올해 했수로 7년차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입사하면서 맡았던 평생교육지원사업을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다.

노년기의 새로운 활력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질 높은 여가프로그램을 즐기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담당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7년 동안 약 1만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많이 보고, 배우고, 그 안에서 나름의 성장도 했다고 생각한다. 가끔 프로그램에 대한 어르신들의 민원을 상대할 때마다 의욕을 상실하여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하지만 이것 역시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앞으로도 지속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괜찮다. 참아야 한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나에게도 반복되는 업무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는 순간이 찾아왔고, 출산으로 인한 6개월간의 휴직 기간과 맞물려 한템포 쉬어가며 나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6개월의 재정부 시간 동안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어르신들을 만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복직을 하자마자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 닥쳐 어르신들을 만날 수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없는 정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아무것도 손을 쓰지 못하고 2020년 처음으로 프로그램 전면 취소 및 환불을 진행하였으며 복지관 역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왕래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매일 활력과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던 복지관이 이제는 말할 수 없이 조용한 공간이 되었고,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던 개인 물품에는 보호막이 덧씌워지기 시작하였다. "복지관 수업은 언제 시작하나요?",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하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어요", "혼자서만 집에 있으니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고 너무 허전해요" 코로나로 인해 복지관에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면 하나같이 똑같은 말씀들을 하신다. 노년기의 유일한 낙이자 여가생활의 공간인 복지관으로의 발길이 막혀버리니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우실까. 이러한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에 복지관에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비대면으로라도 소통을 하고자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공지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렸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복지관에서 들었던 강의를 집에서도 시청하

실 수 있도록 강의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다. 아직은 자녀들과 손자녀들의 도움 없이 SNS를 활용하는 것이 막막하기만 하고,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들이라서 그런지 어르신들에게 피드백이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복지관 소식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어르신들에게는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나 역시 영상 촬영, 편집 등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업무들을 하다 보니 막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편집을 재미있게 잘했다", "자막이 눈에 잘 들어온다"와 같은 피드백을 들을 때면 힘들게 작업했던 순간들이 잊혀 지면서 새로운 영상편집을 하는데 힘을 얻곤 한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작은 시도들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건강한 일상을 되찾고, 복지관이 정상화되어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넘치는 복지관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료 법률 상담 센터 사업 안내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신인정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 이메일: colt0914@gmail.com
 사무실: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상담터

법무부 · 충청북도 ·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12세인 제 조카가 이웃 남자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웃 남자는 현재 성범죄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성범죄 피해자인 조카도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에 근거하여 성폭력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30일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성폭력상당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소 단계부터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는 필요적 수사개시 보고대상 사건이므로 해당 사건 발생 시 성폭력 전담 검사에게 보고되고, 국선변호사의 선정도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국선변호사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수사, 구속전 피의자신문 및 증거 보전 절차 등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수사 절차,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관련 소송의 법률적 지원, 피해자 지원기관을 안내하는 등 형사절차 이외의 지원하는 역할도 합니다.

복지정보 제공

[코아드]코아드 자문료 무료설치 캠페인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www.coaddoor.com)
■ 선정방법: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 안내문의: 189-7081 또는 coad@coaddoor.com으로 문의 가능

[여승사회복지재단] '함께독서' 도서 무료배포 안내

-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 보급권수: 1기관 최대 2권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도서 보급 공지사항-신청양식 확인-이메일 발송
■ 신청기간: 수시
■ 배송관련: 택배비 기관 부담(착불 4,000~4,500원)
■ 유의사항: 기존에 신청한 기관은 제외
■ 문의: 여승사회복지재단 사무국 ☎ 02-553-3488

[바보의나눔]코로나19 관련 cpbc라디오 모금 방송 사연 대상자 추천 안내

- 방송명: cpbc라디오(평화방송) 힘들땐 전화해
■ 방송일시: 매주 월~토 15시~16시
■ 방송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고 ARS 및 무통장 모금 진행 (방송일로부터 2주일)
■ 진행 과정: 사연대상자 추천서류 메일접수 → 사례 선정 여부 안내 → 방송 녹음 진행(대상자/기관 담당자) → 방송 및 모금 진행 → 모금액 집계 및 지급 → 사용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신청공문 및 대상자 추천서(양식 참조), 통장사본 각 1부
■ 제출기한: 상시접수(2주에 사연자 1명 방송)
■ 기타: - 모금액 전액을 대상자에게 지급함(ARS 수수료분 제외)
- 사연 대상자 추천은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추천에 한해 접수(지역제한 없음)

- 라디오 방송으로 대상자의 목소리가 노출됨(가명 사용) → 대상자 동의 필수
■ 문의: 나눔사업팀 하서이 (02-727-2511 /apple@babo.or.kr)

[KT&G복지재단] 2021년 수리소리마소리(청각장애인후원사업) 후원금 신청안내

- 신청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 청각장애인(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
■ 지원내용: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후원물품(※기관사업비, 기관후원물품 제외)
■ 지원절차: 후원금 신청 및 서류접수(매월 1일 ~ 20일) → 선정발표(매월 마지막주) → 선정기관에 후원금 입금(2주 이내) → 후원금 사용내역 결과보고 제출(1개월 이내)
■ 제출서류: 홈페이지 (www.ktnwelfare.org) 참조
■ 지원금액: 보청기, 인공와우 소모품 등 후원물품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KT&G복지재단] 2021년 행복가정학습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저소득 (차상위,수급,일반저소득) 가정의 학령기 아동·청소년 (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학습과 관련된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 지원가능물품: 학용품, 문제집, 일반도서, 교복, 책가방, 체육복(학교지정), 실내화 등
■ 선정발표: 매월 마지막주 중 발표
■ 지원시기: 선정발표 후 2주 이내, 기관평의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 신청방법: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신청 (복지기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 개인신청 불가)
■ 참고: www.ktnwelfare.org

[굿네이버스]신한금융그룹 지정기탁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3차년도)' 사업 안내

- 사업기간: 2018년 5월 ~ 2021년 4월 (상시신청)
■ 신청대상: -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정
- 희망정신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

을 도운 개인 및 단체
■ 신청기준: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신청방법: 거주지역 내 신청기관을 통해 신청(개별신청불가)
*신청기관: 굿네이버스 사업장, 사회복지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단, 지원금 관리 등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항목: 생계주거비, 교육양육비, 의료비, 학대피해지원, 재해·재난구호비, 희망영양)
■ 문의: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무국(월~금 10:00~17:00, 02-6424-1551)
■ 참고: www.shinhan-hope.com

[아산사회복지재단]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 대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나 민간단체 지원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 (www.asanfoundation.or.kr) 신청서 작성
이메일접수(asan-sos@amc.seoul.kr)
■ 문의: 02-3010-2566,2585

[희망나눔 주주연대]의료·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재활치료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의 성인 가정(소년소녀가정, 추송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신청
■ 심사 및 선정절차: 1차 서류 심사(검토) 후 선정자에 한해 2차 추가서류 안내 및 가정방문
■ 문의: 희망나눔 주주연대(02-3789-2555) / hope@hopeon.or.kr
■ 참고: https://www.hopeon.or.kr/html/index

자원 봉사자 모집

- ▶ 공원이름지기 봉사
관리센터: 청주서원노인복지관
활동기간: 4.1~5.31
전화번호: 043-238-3786
▶ 말반찬 배달 봉사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4.1~5.31
전화번호: 043-266-4761
▶ 행정업무보조 봉사
관리센터: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활동기간: 4.1~5.31
전화번호: 043-239-8900
▶ 이마음 봉사
관리센터: 즐거운생활재가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4.1~5.31
전화번호: 043-216-1365

- ▶ 가정방문 심리상담 봉사
관리센터: 청주상당노인복지관
활동기간: 4.1~5.31
전화번호: 043-288-3060
▶ 초등학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4.1~5.31
전화번호: 043-855-1090
▶ 저소득 가정 11 멘토링
관리센터: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기간: 4.1~5.31
전화번호: 043-857-5960
▶ 수영 동아리활동 봉사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4.1~5.31
전화번호: 043-286-4736

- ▶ 유아성폭력예방인형극 공연 봉사
관리센터: 굿네이버스 충북지부
활동기간: 4.1~5.31
전화번호: 043-288-9601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4.1~5.31
전화번호: 043-267-4590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 실천하세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은 지난 3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다양하다. 지역사회봉사단 혜택은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지원과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이 대표적이다. 지역사회봉사단 담당자는 “충북 도내 봉사단체 관리와 다양한 수요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봉사단의 능동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 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n@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은 지난 3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며, 활동분야는 기술·기능을 비롯한 총 8개의 영역으로

TOGETHER 공모전 포스터. 스타벅스·하트-하트재단이 함께하는 텀블러 이미지 공모전. 스타벅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 포괄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매장인 '스타벅스 서울대치과병원점'을 오픈하고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파트너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하트-하트재단은 본 공모전을 통해 청년 장애인들이 꿈을 펼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동참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만/평 수신후 이창신 www.bokmani.com. 독재자들은 늘 자국민의 생명까지 짓밟았고. 불포하라. 늘 더 큰 저항을 만나 무너졌다. 저항하라.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합니다.